

순천시 25~2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비전·정책 논의하고 혁신사례 공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 주제 토론·지역축제 등 다양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27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균형발전박람회는 지난 2004년 시작,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순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대회를 유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크게 지역

혁신가 교류의 장, 학·연 전문가 토론의 장, 다양한 즐길거리와 지역축제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열린다. '지역혁신가 교류의 장'으로는 '혁신활동가 전국협의회' 출범식, 어울림한마당, 지역혁신협의의 전국총회 및 '포용과 균형발전' 주제의 정책세미나, '2019 균형발전박람회 대국민 공모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학·연 전문가 토론의 장' 행사로는 전국 46개 학회와 50여개 국책·지역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박람회(26-27일)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정책박람회 개막세션에서는

'대통령의 경제투어로 본 지역혁신'을 주제로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의 기조강연도 진행되는 등 21분과 40개의 세션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지역축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균형발전박람회 참여자들과 관람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행복한 너, 나, 우리'를 주제로 이상화 전 스피드스케이팅선수과 알베르토 몬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등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토크콘서트, 그리고 '릴레이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2019 정원갈대축제' '대한민국 한평생원 페스티벌' '2019 순천만 국제 교향악축제' 등이 이어진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원

순천시 조례 공포...신고 공무원 승진 시 우대도

순천시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순천시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행위 근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최대 보상금이 20억원까지 지급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해 오거나 재정상 손실방지에 이바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포함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명시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 규정 등도 명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시 내년 시정 방향 '3E 기반 생태경제'

교육·생태 강점 살려 경제 특화...미래 전략산업 육성

순천시가 2020년 시정방향으로 '3E 기반 생태경제'를 제시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미래비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공약, 현안 등 핵심사업에 대한 '2020 주요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미래비전 및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생태경제 프로젝트' 실행을 목표로 삼고, '3E'를 기조로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 2020년 시정운영방향의 기조인 '3E'란 순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여건(Education)과 생태환경(Ecology)의 강점을

살려 경제(Economy)를 특화하는 미래 전략산업 및 순전형 일자리 발굴을 핵심으로 역점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년차에는 새로운 순천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했던 순천시는 내년에는 생태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순천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그 동안 새로운 순천을 위한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2020년에는 순천의 강점인 교육과 생태를 기반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과 세계적인 생태수도로 도약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시정 회의실에서 2020년 미래비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공약, 현안 등 핵심사업에 대한 '2020 주요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미등록 반려견 집중 지도·단속

동물 등록 자진신고 마감 따라

순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31일자로 끝남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단속에 착수했다. 단속반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다만 자진신고기간 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0곳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강화와 단속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발생 및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은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마리의 동물등록을 실시해 지금까지 9300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본격 가동

단계별 인지학습 시설 갖춰

순천시가 시보건소 옆 부지에 19억47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신축한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738.76㎡, 지상 2층 규모로 치매 의심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시는 치매의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 등 숨어있는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추정 치매 환자 4520명 중 3144명

(69.5%)을 등록해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단계별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초기 경증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악화 지연과 치매 예방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치매가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순천도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서 창작한 작품을 연중 전시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편안한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